

도시 가정의 생활사건 요인구조와 관련변인

The Factor Structure of Urban Family Life Events and Related Variables

한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임정빈
목포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조혜정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

Prof.: Jeong-Bin Im

Dept. of Home Management, Mokpo National Univ.

Associate Prof.: Hea-Joung Cho

〈목 차〉

I. 서론	IV.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III. 연구 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with the purpose to analyze the factor structure of family life events and to clear the influence of related variables on family life events. The frequency of experienced events and the degree of importance of events which were the constituent components of family life events was estimated by the 650 married woman in Kangju.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15 factors of family life events derived by factor analysis: F.1 「Expenditure and economic loss」, F.2 「Growth and change of children」, F.3 「Change of family structure」, F.4 「Family's change」, F.5 「Change of life level」, F.6 「Family's social problem」, F.7 「Need of care」, F.8 「Family's health」, F.9 「Marital relationship」, F.10 「Family's social damage」, F.11 「Breach with acquaintance」, F.12 「Financial difficulties」, F.13 「Husband's problem」, F.14 「Housewives' social activity」, F.15 「Kinship's support」.
2. The frequency of experienced family life events such as expenditure and

- economic loss and breach with acquaintance was highest.
3. The degree of importance about experienced family life events such as growth and change of children was highest.
 4. Age, family life cycle have significantly differenced on the degree of importance and the frequency of experienced events.
 5. Education's level, family size, income, housewives' employment and family structure have differently differenced on the degree of importance and the frequency of experienced events according event factor.

I. 서 론

가족체계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변화에 적응하고, 매일 다양한 생활사건을 경험하면서 유지되고 있으며, 또한 가정생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개방 체계이며 행동체계이다. 즉, 가정은 가족원들의 유지 및 성장 발달을 위해 가정관리행동을 하며 가정관리자의 관리행동은 그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가정관리행동은 가족의 요구, 목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며, 이때 가족의 요구, 목표, 사건을 가정관리의 동기적 요소로서 가정관리체계에서는 투입요소로 간주한다. (Deacon & Firebaugh, 1975)

가정의 요구와 목표는 가족의 가치, 이념을 기초로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예측이 가능한 동기요소이며, 지금까지 몇 편의 연구(노영삼, 정용선, 1990; 두경자, 1991)에서 가정관리 동기요소로서 다루어졌다.

사건은 예측가능한 경우와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다. 더구나 현대 사회와 같이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고 변화가 심한 사회에서는 가정생활에 일어나는 사건도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가족은 이런 생활사건과 변화를 잘 관리하면 성장과 발전의 방향으로 나가지만, 긍정적인 생활사건이라도 그 생활사건을 겪는 상황이나 그 사건에 의해 일어나는 많은 변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을때는 가족문제, 가족스트레스, 가족기능약화등을 초래하게 된다(김정옥, 박순희, 1990). 따라서 가정생활사건들은 체계내에 변화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경험이며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생활한다는 것은 변화를 내포

하고 있으며 대처해야 하는 사건들의 연속인 시점에서 가정생활사건을 가정관리 투입요소로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현대생활에 보다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가정관리행동을 모색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생활사건을 가정관리 체계의 요소로 다루는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가정생활사건이 무엇이며 어떤 요인구조로서 특성을 갖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려 한다. 그리하여 가정생활사건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가족체계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그리고 가정생활사건과 관련시켜 볼 수 있는 효율적인 가정관리행동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현대 도시가정에서 경험하는 가정생활사건의 경험빈도와 중요도의 경향은 어떠한가?
2. 현대 도시가정의 가정생활사건은 어떠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가정생활사건의 요인별 경험빈도는 차이가 있는가?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경험한 가정생활사건의 요인별 중요도 및 심각도는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생활사건의 개념과 요인구성

가정관리체계에 대한 요구의 한 지표로서 Deacon과 Firebaugh(1975)는 목표와 사건을 들고 있는데 이때 요구란 체계행동을 발생케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생활사건이란 일상에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 및 부정적인 모든 사건으로서 생활의 변화와 적응이 요구되는 사건이다.

이런 생활사건의 개념은 연구영역에 따라 관련지우는 초점이 상이하다.

가족자원관리 연구에서 사건은 목표와 함께 투입요소로서 관리행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요구적 요소이며(Deacon & Firebaugh, 1975), 각각의 사건은 생활에 있어서의 변화를 야기하고, 이때 변화 요구를 관리하기 위하여는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행동이 요구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가족들이 겪는 생활사건을 통해 각 가정이 처해있는 상황을 진단할 수 있다(문숙재, 김정옥, 1991).

가족스트레스 연구에서 사건은 가족스트레스를 야기시키는 스트레스원이며, 생활사건으로 인한 가족체계의 변화가 어떻게 개인과 가족에게 긴장과 위기감으로 나타나는지에 관점을 가지고 있다.

정신신경의학 연구에서는 개인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으며, 정신적인 건강에 관련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생활사건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생활사건과 정신건강은 절대적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있다(이평숙, 1984).

그리고 스트레스 개념은 선행연구에서 생활사건 자체와는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Baugher와 Martin(1981)은 스트레스는 단순하게 개인의 평형상태를 변경시키고 신체적 긴장의 원인이 되는 신체적 또는 감정적 요소라고 정의 하였다.

McCubbin(1980)은 스트레스는 본래의 사건자체로서 볼 수 없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잘 관리되지 않은 것에 의해서 초래된 긴장으로 고려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생활사건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개인 및 가족체계에 변화와 적응을 요구할 정도의 충분한

심리적, 물리적 경험을 말하며, 이러한 변화요구를 가족체계가 잘 관리하지 못할 때 그 사건은 신체적, 감정적 요소의 스트레스로 인지되며 정신건강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생활사건은 매우 다양하여 특성파악과 연구를 위해서는 유형화가 필요하다.

McCubbin(1983)등은 생활사건을 통례적인 사건과 비통례적인 사건, 내적인 사건과 외적인 사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비통례적 사건(nonnormative events)은 예기치 못했던 사건으로서 전쟁, 가족원 상실, 전근가족, 맞벌이 부부가족, 가족내 폭력, 아동 학대 및 방임, 실직 및 경제적 곤란, 만성장애아의 발생등이다. 통례적 사건(normative events)은 비통례적 사건과 달리 그 사건이 대부분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보편성과 가족생애주기 중 어떤 예정된 지점에서 언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성을 가진 사건으로서 가족생활주기의 내용에서 비롯되는 사건이다.

외적인 사건(external events)은 사회적·기업적 환경 등 가족 외적 상황에서 유래되는 실직, 도난 같은 사건으로 개인과 가족의 통제가 불가능한 사건이다. 반면 내적인 사건(internal events)은 개인적, 가족적 상황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임신, 이사, 결혼, 이혼 등 의도적 관리가 어느정도 가능한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Holmes & Rahe(1969) 이후 몇몇 연구자가 생활사건을 유형별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생활사건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바람직한가 아닌가, 사회적인 유입인가 유출인가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Sarason et al., 1978; Vinokur & Selzer, 1975; Paykel, 1979; Fair bank & Hough, 1979).

이런문제는 생활사건의 하위요인별로 다른 변인과 각각 다른 상관이나, 적응양식을 가진다는 여러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의미가 있다. 또한 요인분석에 의한 분류를 시도하므로서 주관적인 분류보다 내적 일치도와 신뢰도에 의한 분류가 이루어져 타당하다고 본다.

2. 생활사건 측정도구

생활사건 연구는 1930년대 Adolf Meyer가 생활기록표(Life Chart)를 사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된 심리적 경험의 크기나 스트레스를 정량화한다는 것이 Stevens 및 Thurstone (1957) 등에 의해 정신 물리학적 측정방법으로 이론화되었다. 그후 Holmes 등(1967)은 Meyer의 생활기록표를 참고로 43개 생활사건 항목으로 구성된 최근 생활경험표(Schedule of Recent Life Experience)를 고안하였고, 다시 사회재적응 평가척도(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를 개발하여 생활사건을 최초로 정량화 하였다. 이후 Paykel(1971) 등도 이와 유사한 61개 생활사건 항목을 만들었다.

가족학 분야에서 생활사건 측정 연구는 McCubbin 등(1979)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그들은 71개 항목의 FI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를 개발하였다. 최근에는 Olson(1983) 등이 A-FILE(The Adolescent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를 개발하였는데, 이것은 사춘기 자녀 입장에서 가족 일상사건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재적응 평가척도를 기초로 하여 생활사건 항목을 부분적으로 선택한 연구와 FILE 척도를 부분적으로 추출하여 생활사건 항목으로 연구한 것이 있다. 박종원(1982)은 청소년기에 당면할 가능성이 있는 18개의 생활사건을 5개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김정옥·박순희(1990)은 우리나라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87개 생활사건을 9개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김명자(1991)는 우리나라 중년기 가족상황의 부정적 생활사건을 중심으로 30개 생활사건을 6개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고은숙·김명자(1993)는 우리나라 취업부인이 취업함으로써 경험하는 스트레스원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33개 생활사건을 6개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평숙(1984)은 생활사건 도구개발을 위한 탐색조사를 실시하여 98개 생활사건을 16개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Holmes와 Rahe 등(1967) 연구에서 생활사건은 일

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긍정적, 부정적 변화와 재적응이 요구됨으로 특정한 생활사건 발생시 적응에 요구되는 재적응량, 변화량이라는 용어으로써 생활사건을 측정하였고 그 값을 스트레스 수준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생활사건으로 야기되는 변화와 재적응의 요구가 잘 관리되지 않았을때 개인과 가족자원의 상태에 따라 인지되는 곤란정도와 부담감이 스트레스이고(Boss, 1988) 서로 다른 가치와 자원을 가진 가족들은 사건을 인식하는데 있어서도 다양하므로(Deacon & Firebaugh, 1975) 관리의 요구로서 긍정적 사건이 포함된 생활사건과 스트레스의 측정은 구분되어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3. 생활사건에 관련된 변인

긍정적인 생활사건이 포함된 총체적인 가정생활사건 경험빈도와 중요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보다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스트레스에 관련된 생활사건 경험빈도와 스트레스 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령: 김경아와 이정우(1990)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활상의 변화나 문제가 질적, 양적으로 증가되어 관리의 양이 많아진다고 하였다. Harowitz 등(1979) 연구에서 최근 일어났던 사건에서 젊은이가 노인보다 비교적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정옥과 박순희(1990), 김명자(1990), 고은숙과 김명자(1993) 등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사건경험빈도와 사건지각 값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 상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상의 변화가 질적, 양적으로 증가되어 경험빈도는 많아지나 관심, 자원, 가치등이 달라짐으로 생활사건에 대한 인식은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수준: 교육수준과 생활사건이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으나 교육수준에 따라 생활양식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김혜연, 1987), 결국 경험할 수 있는 생활사건의 유형도 달라지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자원에 따라 생활사건 인식이 달라지므로 가족자원의 한 변인인 교육수준에 따라 생활사건 중요도는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가족형태: 이정우와 장병옥(1987)은 핵가족일때, 최승순(1987)은 확대가족일때 스트레스 유발요인이 많다고 상반된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소득: 김태현과 강인(1990)은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가족스트레스 사건이 많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는 스트레스 유발사건에 국한된 것이고 오히려 전체적인 가정생활사건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한 요소가 되는 소득이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측된다. 저소득층은 중류층 및 상류층에 비해 자원의 부족때문에 적절한 생활경험을 방해받으며, 생활이 더 위축되어 있어서 경험한 생활사건 빈도는 적은 반면 생활상에 불안정한 요소가 많아 중요도는 클것으로 예측된다.

가족생활주기: 김정옥과 박순희(1990)연구에서 생활사건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사건의 하위부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생활 단계별 결혼문제 척도로 분석한 Sarason(1981)의 연구에서 보면 결혼생활문제, 자녀양육, 가사노동, 경제적 문제, 의사결정, 친척관계, 애정표현, 가족원 보호등은 전단계를 통해 곡선적 관계를 이루었다. 그리고 정민자(1984)는 가족생활주기는 가족이 변화하는 형태와 속성을 시간상에서 보게됨으로써 가족이 어떤 시점에서 어떤 종류의 문제를 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용한 개념이라고 하였다.

가족수, 주부 취업여부: 가족수, 취업여부와 가정생활사건 경험빈도 및 중요도의 관련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족수는 가족내외부 환경과 가족과의 상호작용의 범위에 영향을 주어 가족수가 많으면 가정생활사건 경험빈도는 많아지고, 제한된 자원으로 많은 요구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주부 취업여부에 따라 가정생활양식의 차이를 가져와 생활사건 하위영역별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생활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배경이나 상황등이 모든 가족에게 다르게 주어지고 동일하게 존재한다 하더라도 각 가정마다 가치, 자원상태에 따라 생활사건을 다르게 지각하여 어떤 특정집단의 생활사건량을 일반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생활사건의 특성과 정의는 생활양식과 문화요인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가정을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복잡하게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 계속 재측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중 연령, 학력, 가족수, 가족형태, 소득, 취업여부, 가족생활주기를 선택하여 오늘날 우리도시 가정에서 경험하는 생활사건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도구

생활사건측정을 위한 도구는 질문지로 하였으며, 가정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균형있게 측정하기 위해 2차에 걸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는 1993년 4월 7일~9일까지 100명의 주부에게 선행연구(이평숙, 1984; McCubbin, 1979)를 참고로 하여 경험유무를 표시하도록 연구자가 작성한 96개 가정생활사건 문항과 이밖에 경험한 가정생활사건을 기록하도록 하는 개방형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차 예비조사는 1차 예비조사 결과를 포함시켜 작성한 103개의 가정생활사건 문항에 대한 경험 유무와 경험한 생활사건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각도, 중요도를 5점 Likert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여 1993년 5월 3일~10일 까지 100명의 주부에게 배부하여 실시하였다.

총 78부가 2차 예비분석 자료로 사용되었으며, 분석결과 가정생활사건 척도의 Cronbach's $\alpha = .9372$ 였다. 그리고 자녀 및 남편의 죽음과 같은 문항은 경험빈도는 적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통례적 사건이고 중요도(심각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가정생활사건을 구성하기 위해 삭제하지 않았다. 자녀 죽음과 관련된 몇개 문항에서 중요도(심각도)가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에 편중되어 정규분포를 이루지 못하고 4.0이상의 높은 평균점을 나타내므로 5점 Likert에서 7점 Likert로 응답범주를 확대하였다. 또한, 가정학 및 관련 전공자

들의 내용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여 전문용어에서 생활용어로 표현을 수정하였으며, 가정생활사건에 대한 심각도(중요도)에서 문항을 분리 또는 결합시켜야 할 것으로 판별된 문항을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도시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정생활사건을 10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자의 가족환경과 개인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가족생활주기, 가족형태, 가족수등을 질문하였다.

2. 조사 대상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한 생활사건을 측정하기 때문에 결혼한지 1년 이상되며 현재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 주부로 하였다. 총 650부의 질문지를 특히 가족생활주기, 취업여부, 소득별로 고루 표집되도록 유층표집하였다. 1993년 5월 25일 - 6월 10일 까지 광주 시내 초, 중, 고, 대학교를 선택하여 400부의 질문지를 학생들의 어머니가 작성하도록 지도하여 학생에게 배부 회수하였다. 그 외는 조사원들이 해당 가족생활주기, 취업여부, 소득층을 고려한 대상자를 만날 수 있는 장소, 즉 소아과, 상점, 아파트단지, 모임등에 찾아가서 직접 면접조사하는 방법으로 250부를 배포하였다. 배포된 650부 중 478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완전한 자료 33개를 제외한 44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상의 표집된 자료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연구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평균, 표준편차, 일원변량분석, 사후검증법 등을 실시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30대와 40대가 76.7%를 차지했고, 20대와 50대 이상은 각각 13.9%, 9.4%였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가 74.6%, 고졸이상이 25.4%로

교육수준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라서는 형성기, 자녀독립기, 자녀결혼기가 5.2%, 5.6%, 5.6%로 각각 나타났고 자녀출산 및 미취학기, 대학교육기가 17.1%로 초등교육기, 중등교육기가 20.3%, 28.4%로 나타나 주기별 지속연수의 비율이 고려된 고른 분포로 나타났다. 취업주부가 45.7%를 차지하여 최근의 주부의 취업증가 추세를 엿볼 수 있으며, 소득은 평균 1,402,141원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 1,158,608만원(한국통계연감, 1991)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족수는 평균 4.5명으로 나타났으며, 현 가족 형태는 핵가족이 82.3%, 직계가족이 17.1%로 나타나 대부분 도시가족이 핵가족임을 알 수 있었다.

2. 가정생활사건 경험빈도와 가정생활사건 중요도의 일반적 경향

생활사건에 대한 측정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은 일정기간 내에 사소한데 중요하든간에 경험했던 사건들의 수를 세는 방법과, 각 경험한 사건에 의하여 야기될 일상생활에서의 변량(Magnitude of change)을 척도화하여 생활사건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1년 이내에 경험한 가정생활사건과 경험한 사건에 관한 중요도(심각도)를 표시하도록 했다.

105개 가정생활사건중 경험빈도와 순위 그리고 가정생활사건 중요도의 평균은 <표 2>과 같다. 특히 경험빈도와 순위는 우리나라 가정에서 일어날 확률이 많은 가정생활사건들의 순서라고 볼 수 있다. 경험빈도가 가장 많은 가정생활사건인 동시에 조사대상자의 과반수이상이 경험하는 가정생활사건은 자녀교육비 증가, 생활비증가, 부부간의 불화, 가족의료·건강비용증가, 생활비 지출문제로 인한 남편과 불화, 적자생활, 시대에 경제적 지원 순서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대체로 생활비 증가와 그에 따른 남편과의 불화, 의견대립등이라고 집약될 수 있다.

경험빈도가 가장 낮은 가정생활사건들은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남편과 별거나 이혼, 부모가 재혼, 가족원이 특수시설가정입소, 이혼했던 자녀 재혼·재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45)

변 인	집 단	N (%)	변 인	집 단	N (%)
연령(세)	29 이하	62(13.9)	소득(만원)	90 이하	116(26.4)
	30-39	175(39.4)		91-120	136(30.7)
	40-49	166(37.3)		121-150	74(16.7)
	50 이상	42(9.4)		150 이상	123(26.2)
				무응답	1(0.2)
교육수준	국졸이하	39(8.8)	가족수(명)	2	16(3.6)
	중 졸	263(65.8)		3	62(13.9)
	고 졸	18(4.1)		4	158(35.5)
	대졸이상	95(21.3)		5	131(29.4)
가족생활주기	형성기	23(5.2)	6이상	76(17.0)	
	자녀출산 및 미취학기	76(17.1)	무응답	2(0.4)	
	자녀 초등교육기	90(20.3)	가족형태	핵가족	365(82.3)
	자녀 중등교육기	126(28.4)		직계가족	77(17.1)
	자녀 대학교육기	76(17.1)		무응답	3(0.6)
	자녀 독립기	25(5.6)			
	자녀 결혼기	25(5.6)			
무응답	3(0.6)				
취업여부	있 다	203(45.7)			
	없 다	238(53.6)			
	무 응 답	3(0.7)			

〈표 2〉 생활사건 경험빈도와 중요도의 평균

생활사건	사건 경험 빈도(%)	순 위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자녀교육비 증가	71.2	1	4.51	2.18
생활비 증가	67.7	2	4.25	2.08
부부간에 불화	58.6	3	3.88	2.21
가족의료·건강비용 증가	55.6	4	4.13	2.14
생활비 지출(관리)문제로 남편과 불화	54.5	5	3.88	2.07
적자 생활	51.5	6	3.90	2.18
시택에 경제적 지원	50.0	7	4.25	2.08
부모 이혼이나 별거	2.7	100	4.66	2.70
남편과 별거,이혼	2.7	100	3.91	2.64
가족원이 특수시설가정 입소	2.5	102	4.00	2.53
부모가 재혼	2.5	102	3.36	2.54
이혼했던 자녀가 재혼, 재결합	1.8	104	3.87	2.80
남편과 별거후 재결합	1.8	104	3.12	2.64

결합, 남편과 별거 후 재결합 등으로 가족들의 결혼 실패 이후 있을 수 있는 재적응의 결혼형태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회문화 가치관인 결혼관이나 효도관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요도 순위가 상위인 가정생활사건은 자녀출산(5.93) 자녀대학입학(5.93), 자녀취업(5.93) 자녀결혼(5.84)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빈번하게 경험하는 사건이 아니고 생활주기상 가족발달측면의 사건이다. 옥선화등(1991) 연구에서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40대의 중산층 주부가 지각한 가정생활의 제문제 중에서 주부가 가장 어렵다고 지각한 문제가 자녀의 성적 및 진학, 자녀진로 및 취업이었다는 결과와 일치된다. 본연구는 모든 생활주기의 조사대상자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떤 생활주기의 가정에서나 자녀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정우, 최덕경(1992)연구의 가정생활문제 인지도에서 경제문제를 가장 높게 인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자녀문제였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생활사건에 대한 중요도, 인지도, 어려움 지각등으로 연구마다 사건은 다르게 측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생활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량 연구(이평숙, 1984)에서 가장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배우자 죽음, 자녀죽음, 부모죽음 등으로 가족의 죽음과 관련된 결과와 본 연구의 가정생활사건 중요도와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가족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결정과 행동을 요구하는 심각도 및 중요도로서 생활사건 중요도와 단순하게 개인의 평형상태를 변경시키고 신체적 긴장의 원인이 되는 신체적 또는 감정적 요소라 할수있는 스트레스 수준을 구별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측정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스트레스와 생활사건 측정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더 있어야 할것으로 본다.

3. 생활사건의 요인 구조

생활사건에 대한 요인분석은 생활사건 항목들이 어떠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는 탐색

의 목적으로 많은 변인들 속에 숨어있는 일련의 요인을 찾아내어 원래의 변인들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발견해 내기 위해 실시되었다.

사용된 요인분석방법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와 Varimax 회전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Kaiser 기준에 따라 아이겐 값이 1.0 이상인 15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별로 각 문항들이 지닌 요인적재값을 정리하여 높은 요인적재값을 지닌 요인에 문항들을 묶어 <표 3>와 같이 15개 요인으로 구조화시켰다.

이상과 같이 요인분석을 통해 도시가정의 생활사건 요인을 요인 1은 「지출 및 경제적 손실」, 요인 2는 「자녀의 발달과 변화」, 요인 3은 「가족구성의 변화」, 요인 4는 「가족의 변화」, 요인 5는 「생활수준 변화」, 요인 6은 「가족의 사회적 문제」, 요인 7은 「서비스 요구」, 요인 8은 「가족의 건강」, 요인 9는 「부부관계」, 요인 10은 「가족의 사회적 손상」, 요인 11은 「친지간의 불화」, 요인 12는 「경제적 악화」, 요인 13은 「남편의 문제」, 요인 14는 「주부의 사회활동」, 요인 15는 「친지의 지원」등으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의 범위는 0.55-0.83으로 비교적 만족할만 수준이었다. 이상의 결과는 우리나라 생활사건 연구중에서 김정옥, 박순희(1990)의 87개 생활사건의 9개 요인과 이평숙(1984)의 97개 생활사건의 16개 요인과는 상이하다. 즉, 본 연구는 개인이 가정생활과 관련되어서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특성을 지닌 모든 가정생활사건이다. 지금까지 연구보다 가장 많은 105개 생활사건에서 오늘날 가정생활의 변화와 경험하는 사건들이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경험한 생활사건에 적응하기 위한 결정과 행동을 요구하는 중요도(심각도)에 의한 요인 분석이므로 인지도와 어려움 지각등으로 조사한 선행연구와는 구별이 된다.

〈표 3〉 생활사건 요인과 신뢰도 계수

요인	생활사건 내용	요인	생활사건 내용
〈요인1〉 지 출 및 경제적 손 실	큰돈 필요하여 대출,차입 집을 개조(구조,평수등) 법·법규변화로 불이익, 문제 취미·여가 시작 취미·여가 중단 시부모와 동거 시부모와 분거 가족이 약속·규칙만들 시택에 경제적 지원 친정에 경제적 지원 가까운 가족 입원	〈요인3〉 가 족 구 성의 변 화	특수시설 입소 가족원 가출 기혼자녀와 동거 남편과 이혼, 별거 남편과 별거후 재결합 부모 재혼 부모 이혼, 별거 남편 사망 자녀 사망 유산 13문항, cronbach'α=.75
	투자 부모부양책임 발생 주거지 이동 자동차·컴퓨터·집 구입 주부 직업 중단 가정살림, 자녀양육을 타인에게 맡김	〈요인4〉 가 족의 변 화	자녀 결혼 기혼자녀 출산 원하지 않은 임신 미혼자녀 임신 기혼 동거자녀 출산 가까운 가족 사망 6문항, cronbach'α=.65
	소비자 피해 사회제도 변경으로 불이익, 문제 생활정보 변경으로 불이익, 문제 남편직업 변화(불황·감봉)	〈요인5〉 생활수준 변 화	남편직업생활 변화(호황,승진) 가정 수입 증가 생활비 증가 자녀교육비 증가 가족 건강의료비 증가 5문항, cronbach'α=.71
	21문항, cronbach'α=.83	〈요인6〉 가 족의 사 회적 문 제	사회·봉사활동 시작 사회·봉사활동 중단,전환 자녀가 실직 자녀가 새직업으로 전환 가족원의 소송사건·법적분쟁 관련 5문항, cronbach'α=.63
	〈요인2〉 자녀의 발달과 변 화	자녀문제로 학교·전문가와 상담 자녀 중·고 입학 자녀 대학 입학 자녀 군입대 자녀 취업 자녀 집 떠남(학교·직장이유) 자녀 중요한 시험(진학·취직) 자녀 중요한 시험 합격 자녀 중요한 시험 실패 자녀 가정밖에서 지내는 시간 늘어남 자녀 성격, 친구문제 발생 집 떠나 살던 자녀와 재동거 자녀와 불화 자녀 전학 자녀들 대립	〈요인7〉 서 비 스 요 구
15문항, cronbach'α=.83		5문항, cronbach'α=.70	

〈표 3〉 계속

요인	생활사건 내용	요인	생활사건 내용
〈요인8〉 가족의 건강	가족원 건강 문제 건강상 식사습관 변화 가족원 정신건강 문제 주부가 약국, 병원 치료	〈요인11〉 친지간의 불 화	이웃, 친지와 불화 시대 식구와 불화 친정 식구와 불화 담보물, 빌려준 돈 손실
	4문항, cronbach' α = .66		4문항, cronbach' α = .58
〈요인9〉 부부관계	부부 갯년기 경험 부부 싸움후 각방 사용 부부 싸움 중 폭력 부부, 배우자의 회갑 생활비 관리문제로 남편과 불화 부부간 불화 성생활 불만 폐경기	〈요인12〉 경제적 악 화	가정수입 감소 남편 새직업으로 전환 남편 실직, 휴직 직자생활
	8문항, cronbach' α = .71		4문항, cronbach' α = .59
〈요인10〉 가족의 사회적 손 상	신앙생활 시작 신앙생활 중단, 전환 가족이 타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공격 받음 가족원의 약물사용, 과음 가족원의 가벼운 위법행위 도난, 강도등으로 재산상 손실	〈요인13〉 남편의 문 제	남편 도박, 외도 남편 가정박시간, 외박 많아짐 남편과 직업상 별거
	6문항, cronbach' α = .57		〈요인14〉 주부의 사회활동
		〈요인15〉 친지의 지 원	3문항, cronbach' α = .58
		부모, 친척으로부터 경제적지원 친정 부모와 동거 친정 부모와 분거	3문항, cronbach' α = .55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생활사건 경험 빈도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각 집단별 생활사건 경험빈도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인 생활사건 요인은 15개 요인 중 6개 요인으로 자녀의 발달과 변화, 가족의 변화, 생활수준 변화, 가족의 사회적 문제, 부부관계, 친지의 지원요인과 전체생활사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친지의 지원을 제외한 모든생활 사건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경험빈도가 높았다. 이것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가정생활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많은 생활사건을 경험하게 됨을 알수있다. 특히 연령이 낮았을때는 가정생활경험과 자원 부족으로 친

지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가족수에 따라 차이를 보인 생활사건 요인은 자녀의 발달과 변화, 생활수준 변화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족수가 많을 수록 경험빈도가 많아졌다. 가족수가 많은 경우는 자녀수와 높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녀의 발달과 변화의 생활사건에 관련된 경험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다. 또한 가족수가 많으면 취업가족수가 많을수 있고, 수입 지출의 상승 변화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특성이 되기때문에 가족수가 많을수록 생활수준 변화 경험이 많아진다고 할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 생활사건 요인은 지출 및 경제적 손실, 자녀의 발달과 변화, 경제적 악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생활사건 경험빈도의 차이

독립 변인	집 단 (빈도)	지출 및 경제적 손실	자녀의 발달과 변화	가족구성의 변화	가족의 변화	생활수준 변화	가족의 사회적 문제	서비스요구	가족의 건강
연령 (세)	29이하 (61)	6.57	0.80 A	0.41	0.44 A	2.02 A	0.39 A	1.36	1.11
	30~39 (175)	5.86	2.39 B	0.43	0.55 AB	2.71 B	0.51 AC	1.41	1.10
	40~49 (161)	6.18	5.48 C	0.51	0.76 B	2.89 B	0.71 BC	1.31	1.19
	50이상 (45)	5.80	6.24 C	0.82	1.71 C	2.73 B	0.89 B	1.40	1.42
	F	0.50	65.90**	0.99	17.17***	5.04**	3.67*	0.14	1.04
	집 단 (빈도)	부부 관계	가족의 사회적 손상	친지간 불화	경제적 악화	남편의 문제	주부의 사회활동	친지의 지원	Total
독립 변인	29이하 (61)	2.02 A	1.23	1.43	1.20	0.26	0.89	0.61 A	20.74 A
	30~39 (175)	1.88 A	1.22	1.23	1.19	0.37	0.94	0.31 B	22.12 A
	40~49 (161)	2.19 A	1.27	1.36	1.27	0.36	0.84	0.31 B	26.63 B
	50이상 (45)	2.98 B	1.62	1.56	1.36	0.49	0.80	0.29 B	30.11 B
	F	4.77 **	1.3	1.00	0.37	1.03	0.47	3.93 **	5.89 ***
	집 단 (빈도)	부부 관계	가족의 사회적 손상	친지간 불화	경제적 악화	남편의 문제	주부의 사회활동	친지의 지원	Total
가족수 (명)	1~2 (19)	6.79	1.05 A	0.37	0.68	2.05 AC	0.63	0.79	1.37
	3 (59)	6.03	1.73 A	0.49	0.56	2.17 A	0.56	1.44	1.12
	4 (160)	6.32	3.18 B	0.55	0.79	2.86 B	0.57	1.49	1.16
	5 (129)	5.75	4.41 C	0.48	0.66	2.76 BC	0.65	1.22	1.19
	6이상 (75)	5.93	5.75 D	0.45	0.58	2.72 BC	0.64	1.45	1.15
	F	0.46	19.51***	0.12	1.02	19.51***	0.20	1.40	0.19
집 단 (빈도)	부부 관계	가족의 사회적 손상	친지간 불화	경제적 악화	남편의 문제	주부의 사회활동	친지의 지원	Total	
독립 변인	1~2 (19)	2.32	1.16	1.37	1.11	0.26	1.00	0.63	21.58
	3 (59)	2.12	1.39	1.36	1.25	0.41	0.75	0.44	21.81
	4 (160)	2.12	1.31	1.42	1.34	0.39	0.98	0.33	24.81
	5 (129)	2.06	1.20	1.22	1.13	0.36	0.80	0.31	24.20
	6이상 (75)	2.19	1.29	1.35	1.21	0.31	0.89	0.32	26.53
	F값	0.12	0.30	0.47	0.74	0.40	1.08	1.45	0.98
집 단 (빈도)	부부 관계	가족의 사회적 손상	친지간 불화	경제적 악화	남편의 문제	주부의 사회활동	친지의 지원	Total	
교육 수준	국졸이하 (36)	4.78 A	5.08 A	0.47	1.00 A	2.36	0.86	0.97	1.14
	중졸 (73)	6.11 AC	5.37 A	0.45	0.90 A	2.95	0.62	1.52	1.18
	고졸 (218)	5.88 A	3.53 B	0.56	0.69 B	2.65	0.60	1.32	1.19
	대졸이상 (107)	7.00 BC	2.46 C	0.37	0.57 B	2.72	0.54	1.55	1.14
	F값	2.88 *	13.57***	0.43	2.28 *	1.31	1.05	1.71	0.06
	집 단 (빈도)	부부 관계	가족의 사회적 손상	친지간 불화	경제적 악화	남편의 문제	주부의 사회활동	친지의 지원	Total
독립 변인	국졸이하 (36)	2.00 AB	0.94	1.14	1.31 AB	0.25	0.67	0.28	23.25
	중졸 (73)	2.63 A	1.42	1.33	1.49 A	0.37	1.05	0.22	27.62
	고졸 (218)	2.04 B	1.27	1.32	1.17 B	0.39	0.86	0.39	23.85
	대졸이상 (107)	2.01 B	1.32	1.42	1.78 AB	0.34	0.91	0.39	23.92
	F값	2.36*	1.20	0.47	1.75 *	0.57	1.51	1.54	1.26
	집 단 (빈도)	부부 관계	가족의 사회적 손상	친지간 불화	경제적 악화	남편의 문제	주부의 사회활동	친지의 지원	Total

(표 4) 계속

독립변인	집 단 (빈도)	지출 및 경제적 손실	자녀의 발달과 변화	가족구성의 변화	가족의 변화	생활수준 변화	가족의 사회적 문제	서비스요구	가족의 건강
가족 생활주기	형성기 (22)	6.86 AB	0.23 B	0.05 A	0.27 A	1.86 A	0.50 A	0.82 A	1.32 AB
	자녀출산 및 미취학기 (76)	6.34 AB	0.97 AB	0.37 A	0.54 A	2.46 AB	0.43 A	1.58 AC	0.86 A
	자녀초등교육기 (92)	6.32 A	2.29 AC	0.46 A	0.58 A	2.82 BC	0.46 A	1.67 BC	1.33 BC
	자녀중등교육기 (120)	5.08 B	3.87 D	0.62 AB	0.79 A	2.61 BD	0.59 A	1.16 A	1.03 AC
	자녀대학교육기 (76)	6.75 A	6.64 E	0.30 A	0.62 A	3.05 CD	0.67 A	1.20 AC	1.25 BC
	자녀독립기 (25)	5.96 AB	6.44 E	0.56 A	0.76 A	2.88 BD	0.84 AB	1.44 AC	1.24 AB
	자녀결혼기 (27)	6.93 AB	6.48 E	1.33 B	2.22 B	2.74 ABD	1.22 B	1.63 AC	1.74 B
	F	1.79 *	43.60***	2.49*	11.64***	2.35*	3.25**	2.13*	2.91**
	집 단 (빈도)	부부 관계	가족의 사회적 손상	친지간 불화	경제적 악화	남편의 문제	주부의 사회활동	친지의 지원	Total
	형성기 (22)	1.95 ACD	1.18	1.41	1.32 AB	0.27	0.91	0.68 A	20.64 A
자녀출산 및 미취학기 (76)	1.84 A	1.22	1.34	1.13 A	0.37	0.96	0.43 AB	20.86 A	
자녀초등교육기 (92)	2.12 ACD	1.34	1.25	1.22 A	0.30	0.95	0.27 B	23.36 AC	
자녀중등교육기 (120)	1.74 AC	1.08	1.20	1.09 A	0.35	0.78	0.27 B	22.24 AC	
자녀대학교육기 (76)	2.46 DE	1.33	1.39	1.36 AB	0.41	0.84	0.42 AB	28.70 BD	
자녀직업적응기 (25)	2.80 DE	1.64	1.68	1.40 AB	0.40	1.04	0.32 AB	29.40 CD	
자녀결혼기 (27)	3.15 BE	1.67	1.70	1.81 B	0.56	0.85	0.30 AB	34.33 BD	
F	3.95***	1.36	1.04	1.96*	0.64	0.56	1.99*	4.95***	
독립변인	집 단 (빈도)	지출 및 경제적 손실	자녀의 발달과 변화	가족구성의 변화	가족의 변화	생활수준 변화	가족의 사회적 문제	서비스요구	가족의 건강
소득	상중하 (115)	5.74	3.30	0.42	0.65	2.69 A	0.52	1.43	1.03
	(219)	6.02	3.85	0.58	0.79	2.66 A	0.63	1.28	1.23
	(105)	6.58	3.79	0.40	0.70	3.01 B	0.68	1.45	1.18
	F	1.09	1.01	0.81	0.70	3.71 *	0.80	0.62	1.11
	집 단 (빈도)	부부 관계	가족의 사회적 손상	친지간 불화	경제적 악화	남편의 문제	주부의 사회활동	친지의 지원	Total
상중하 (115)	2.13	1.22	1.30	1.45 A	0.33	0.75 A	0.49 A	23.23	
(219)	2.12	1.34	1.28	1.17 B	0.37	0.90 B	0.32 B	24.54	
(105)	1.15	1.20	1.50	1.16 B	0.39	1.01 B	0.24 B	25.44	
F	0.01	0.58	1.19	2.78*	0.24	2.15*	4.48*	0.59	
독립변인	집 단(빈도)	지출 및 경제적 손실	자녀의 발달과 변화	가족구성의 변화	가족의 변화	생활수준 변화	가족의 사회적 문제	서비스요구	가족의 건강
취업여부	있다 (201)	6.45	3.33	0.46	0.68	2.71	0.62	1.49	1.15
	없다 (237)	5.78	4.01	0.53	0.77	2.66	0.60	1.27	1.19
	F	2.67*	4.22*	0.26	0.76	0.11	0.02	2.42*	0.17
	집 단 (빈도)	부부 관계	가족의 사회적 손상	친지간 불화	경제적 악화	남편의 문제	주부의 사회활동	친지의 지원	Total
	있다 (201)	2.09	1.29	1.33	1.27	0.35	1.19	0.33	24.75
없다 (237)	2.16	1.27	1.35	1.22	0.87	0.62	0.36	24.19	
F	0.19	0.01	0.01	0.21	0.25	43.09***	0.32	0.15	
독립변인	집 단 (빈도)	지출 및 경제적 손실	자녀의 발달과 변화	가족구성의 변화	가족의 변화	생활수준 변화	가족의 사회적 문제	서비스요구	가족의 건강
가족형태	핵가족 (362)	6.17	3.78	0.50	0.73	2.78	0.62	1.36	1.21
	직계가족 (77)	5.62	3.37	0.49	0.77	2.22	0.56	1.42	0.96
	F	0.99	0.86	0.00	0.06	8.74**	0.24	0.08	2.96*
	집 단 (빈도)	부부 관계	가족의 사회적 손상	친지간 불화	경제적 악화	남편의 문제	주부의 사회활동	친지의 지원	Total
	핵가족 (362)	2.15	1.28	0.40	1.31	0.39	0.89	0.37	24.93
직계가족 (77)	1.99	1.23	0.03	0.92	0.27	0.86	0.26	21.97	
F	0.56	0.09	5.62*	7.84**	1.89	0.06	1.80	2.38	

* 소득분포에서 상위 25%(171만 이상)를 "상", 26-75%(91-170만)를 "중", 76-100%(90만 이하)를 "하"로 구분

*P<.05 **P<.01 ***P<.001

화, 부부관계, 가족의 변화이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출 및 경제적 손실요인은 대졸이상 집단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고 국졸이하 집단에서 가장 적게 경험하여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경제적 변화를 야기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자녀의 발달과 변화요인에서는 국졸이하의 집단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하고 대졸이상 집단에서 가장 적은 경험을 하게 되어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자녀의 발달과 변화로 인한 생활사건이 다양하고 많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악화요인은 고졸집단에서 가장 적은 경험을 하고 대졸이상 집단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하여 고학력의 가정에서 직업 및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취업인구 구조가 반영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부부관계에 관련된 생활사건은 중졸 집단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변화요인에서는 대졸이상의 집단에서 가장 경험이 적게 나타나 이것은 관련 생활사건중 원하지 않은 임신이나 미혼자녀의 임신 등의 사건은 교육의 효과로 경험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차이를 보인 생활사건 요인은 가족의 사회적 손상, 친지간의 불화, 남편의 문제, 주부의 사회활동요인을 제외한 11개 요인과 전체 생활사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대부분의 요인과 전체 생활사건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가족생활주기가 가족의 변화와 경험사건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녀 결혼기에 전반적으로 많은 생활사건을 경험하며, 지출 및 경제적 손실과 친지의 지원요인은 형성기 가정에서 많은 사건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성기 부부는 결혼으로 인한 많은 지출과 새롭게 경제적 기초를 확립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특성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인 생활사건 요인은 생활수준 변화, 경제적 악화, 주부의 사회활동, 친지의 지원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저소득층에서는 경제적 빈곤으로 주부의 취업에 의한 문제와 비목별 생활비증가 및 총생활비 증가의 경험이 더 많이 나

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경제적 악화와 친지의 지원요인은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경험하여 사회변화에 의한 경제적 악화사건이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더 빈번하게 경험되며, 빈곤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해 친지보다 이웃과의 교류가 더 많다는 결과와 관련지어 볼 때(원효정, 옥선화, 1993) 저 소득층에서 친지의 지원과 관련된 생활사건 빈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인 생활사건 요인은 지출 및 경제적 손실, 자녀의 발달과 변화, 서비스의 요구, 주부의 사회활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전업주부가 자녀의 발달과 변화에 관련된 생활사건을, 취업주부가 지출 및 경제적 손실, 서비스 요구, 주부의 사회활동에 관련된 생활사건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 여부에 따라 가정 생활 양식과 가족원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사건을 다르게 경험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가족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인 생활사건 요인은 생활수준 변화, 친지와 불화, 가족의 건강, 경제적 악화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모든 요인에서 핵가족이 직계가족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는 생활사건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정우·장병욱(1987)의 연구에서 핵가족일때 스트레스 유발요인이 많다는 결과와 일치되며, 스트레스 유발사건 이외에도 이같은 결과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생활사건 중요도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생활사건 중요도의 차이는 <표 5>와 같다.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인 생활사건 요인은 지출 및 경제적 손실, 자녀의 발달과 변화, 가족의 변화, 생활수준 변화, 가족의 건강, 부부관계, 친지의 지원과 총생활사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지출 및 경제적 손실과 친지의 지원요인을 제외한 5개 요인과 전체에서는 연령이 높은 50세 이상 집단에서 모든 관련 생활사건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했다. 이는 이들 집단이 가족의 변화, 건강, 발달적 생활사건 요구에 대해 중요하고 심각하다는

(표 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생활사건 중요도의 차이

독립 변인	집 단 (빈도)	지출 및 경제적 손실	자녀의 발달과 변화	가족구성의 변화	가족의 변화	생활수준 변화	가족의 사회적 문제	서비스요구	가족의 건강
연령 (세)	29 이하 (59)	27.46	3.20 A	1.95	1.71 A	7.97 A	1.84	7.80	4.18 A
	30-39 (172)	25.55	10.55 B	1.87	2.71 AB	11.80 B	2.25	7.99	4.60 A
	40-49 (156)	25.51	27.02 C	1.96	3.50 B	12.89 B	2.92	6.62	5.03 A
	50이상 (42)	24.69	32.39 C	3.26	8.23 C	11.91 B	3.24	7.27	7.18 B
	F	0.16	57.10***	0.63	14.09***	4.44**	1.63	0.67	2.80*
	집 단 (빈도)	부부 관계	가족의 사회적 손상	친시간 불화	경제적 악화	남편의 문제	주부의 사회활동	친지의 지원	Total
	29이하 (59)	7.51 A	4.36	5.03	4.92	0.75	3.80	2.36 A	80.55 A
30-39 (172)	7.53 A	4.97	4.86	5.24	1.53	4.09	1.22 B	93.16 A	
40-49 (156)	7.94 A	5.51	5.29	5.67	1.38	3.81	1.07 B	115.36 B	
50이상 (42)	12.02 B	6.00	6.22	6.23	1.87	3.80	1.24 B	124.95 B	
F	3.33*	0.99	0.66	0.49	1.29	0.11	3.17*	4.58**	
독립 변인	집 단 (빈도)	지출 및 경제적 손실	자녀의 발달과 변화	가족구성의 변화	가족의 변화	생활수준 변화	가족의 사회적 문제	서비스요구	가족의 건강
가족수 (명)	1-2 (19)	29.89	6.05 AB	2.63	4.28	9.42 AB	3.11	4.68	5.74
	3 (56)	29.55	7.17 A	2.08	2.34	8.79 A	2.52	8.53	4.27
	4 (157)	25.88	13.89 B	2.16	3.81	12.46 B	2.67	7.80	4.70
	5 (127)	24.84	22.83 C	1.98	2.86	12.07 B	2.69	6.30	5.06
	6이상 (70)	25.91	28.73 D	1.95	4.21	12.24 B	2.74	8.22	5.69
	F	0.22	19.10***	0.04	1.46	1.25*	0.32	1.37	0.67
	집 단 (빈도)	부부 관계	가족의 사회적 손상	친시간 불화	경제적 악화	남편의 문제	주부의 사회활동	친지의 지원	Total
1-2 (19)	9.26	4.21	5.21	5.11	0.32	3.79	2.95 A	93.39 AB	
3 (56)	8.34	5.46	4.83	5.51	1.68	3.24	1.54 AC	85.78 A	
4 (157)	8.02	5.23	5.49	5.76	1.50	4.28	1.20 BC	99.57 AB	
5 (127)	7.70	5.15	4.78	5.20	1.43	3.50	1.35 BC	106.86 AB	
6이상 (70)	8.69	5.21	5.47	5.28	1.19	4.4	0.96 BC	120.64 B	
F	0.24	0.18	0.35	0.17	0.81	0.87	1.97*	1.63*	
독립 변인	집 단 (빈도)	지출 및 경제적 손실	자녀의 발달과 변화	가족구성의 변화	가족의 변화	생활수준 변화	가족의 사회적 문제	서비스요구	가족의 건강
교육 수준	국졸이하 (35)	17.97 A	25.64 A	2.11	5.09	9.81	3.17	4.94 A	4.56
	중 졸 (71)	25.73 AB	27.83 A	1.76	3.72	12.67	2.97	7.85 A	5.51
	고 졸 (209)	24.26 A	16.41 B	2.17	3.31	11.81	2.47	6.97 A	4.77
	대졸이상 (106)	31.58 B	11.46 C	1.75	2.78	11.67	2.18	9.22 B	5.17
	F	4.20**	14.06***	0.16	1.51	0.81	0.76	2.48*	0.39
	집 단 (빈도)	부부 관계	가족의 사회적 손상	친시간 불화	경제적 악화	남편의 문제	주부의 사회활동	친지의 지원	Total
	국졸이하 (35)	7.89 AB	3.92	4.31	6.00 AB	1.17	3.14 AB	0.94	95.31 AB
중 졸 (71)	10.46 A	5.99	5.57	7.34 A	1.67	5.01 A	0.72	124.51 A	
고 졸 (209)	7.65 B	5.07	5.00	4.84 B	1.36	3.53 B	1.46	97.04 B	
대졸이상 (106)	7.79 AB	5.33	5.47	5.14 B	1.36	4.28 AB	1.60	104.30 AB	
F	1.95*	1.15	0.50	2.99*	0.25	2.03*	1.72	2.07*	

(표 5) 계속

독립변인	집 단 (빈도)	지출 및 경제적 손실	자녀의 발달과 변화	가족구성원의 변화	가족의 변화	생활수준 변화	가족의 사회적 문제	서비스요구	가족의 건강
가족 생활 주기	형성기 (22)	24.77 AB	4.77 AC	0.23 A	0.86 A	6.27 A	1.91 A	4.00 A	3.68 A
	자녀출산 및 미취학기 (74)	29.81 A	4.12 A	1.74 A	2.58 A	10.62 B	2.07 A	9.24 BC	3.76 A
	자녀초등교육기 (89)	27.67 A	10.20 C	2.32 AC	3.07 A	12.34 BD	2.15 A	0.35 BC	5.80 BC
	자녀중등교육기 (116)	18.96 B	17.36 B	1.97 A	3.58 A	10.84 B	2.10 A	5.43 A	3.99 A
	자녀대학교육기 (75)	28.20 A	33.23 D	1.32 A	2.36 A	14.09 CD	2.70 A	5.73 A	5.37 ACD
	자녀직업적응기 (23)	30.43 A	36.56 D	2.72 AC	4.38 A	14.38 BD	3.96 AB	8.80 AC	6.32 ACD
	자녀결혼기 (26)	28.23 AB	32.48 D	5.12 BC	10.23 B	11.22 ABD	4.74 B	7.89 AC	7.96 BD
	F	2.74*	38.90***	1.74*	8.65***	3.12**	2.31*	4.26***	3.19**
	집 단 (빈도)	부부 관계	가족의 사회적 손상	친지간 불화	경제적 악화	남편의 문제	주부의 사회활동	친지의 지원	Total
	형성기 (22)	5.82 AC	3.73	4.95 AB	4.41 AC	0.27	2.95	2.36	71.00
자녀출산 및 미취학기 (74)	7.45 AC	4.77	5.19 AB	4.92 AC	1.49	4.66	1.79	90.82	
자녀초등교육기 (89)	8.90 AD	5.63	4.88 AB	5.70 AC	1.33	4.11	1.12	99.18	
자녀중등교육기 (116)	5.61 C	4.24	4.60 A	4.24 AC	1.25	3.23	0.90	95.42	
자녀대학교육기 (75)	9.37 AE	5.83	5.26 AB	6.24 BC	1.71	3.84	1.64	126.83	
자녀직업적응기 (23)	13.08 BF	6.92	7.76 B	7.08 BC	1.76	4.40	1.28	156.05	
자녀결혼기 (26)	12.07 BDE	6.48	6.33 AB	9.08 B	1.85	4.48	0.96	129.96	
F	4.71**	1.78	1.19*	2.86 **	0.80	0.91	1.53	5.38 ***	
독립변인	집 단 (빈도)	지출 및 경제적 손실	자녀의 발달과 변화	가족구성원의 변화	가족의 변화	생활수준 변화	가족의 사회적 문제	서비스요구	가족의 건강
소득	상중하 (110)	22.47	14.78	1.45	2.48	9.67 A	1.80	7.25	4.21
	(212)	26.64	19.36	2.50	3.85	12.18 B	2.80	7.42	5.28
	(104)	27.85	17.71	1.79	3.57	13.06 B	2.88	7.56	5.20
	F	1.81	2.14	1.24	2.11	4.48 *	2.34	0.03	1.35
	집 단 (빈도)	부부 관계	가족의 사회적 손상	친지간 불화	경제적 악화	남편의 문제	주부의 사회활동	친지의 지원	Total
상중하 (110)	7.63	4.66	4.66	6.05	1.12	2.90 A	1.84 A	85.68	
(212)	8.27	5.65	5.17	5.34	1.45	4.14 B	1.25 B	107.73	
(104)	8.61	4.74	5.83	5.16	1.63	4.63 B	0.90 B	111.99	
F	0.35	1.54	1.03	0.65	0.75	3.56 *	3.02 *	3.39 *	
독립변인	집 단 (빈도)	지출 및 경제적 손실	자녀의 발달과 변화	가족구성원의 변화	가족의 변화	생활수준 변화	가족의 사회적 문제	서비스요구	가족의 건강
취업 여부	있다 (196)	27.40	15.74	2.22	3.38	11.94	2.79	8.37	5.05
	없다 (230)	24.37	19.57	1.92	3.45	11.40	2.34	6.65	4.91
	F	1.95	4.36*	0.26	0.01	0.38	1.12	3.87*	0.06
	집 단 (빈도)	부부 관계	가족의 사회적 손상	친지간 불화	경제적 악화	남편의 문제	주부의 사회활동	친지의 지원	Total
	있다 (196)	8.39	5.29	5.17	5.67	1.54	5.66	1.30	109.36
없다 (230)	7.97	5.11	5.23	5.28	1.29	2.46	1.32	97.30	
F	0.24	0.11	0.01	0.39	0.64	47.72***	0.01	2.28	
독립변인	집 단 (빈도)	지출 및 경제적 손실	자녀의 발달과 변화	가족구성원의 변화	가족의 변화	생활수준 변화	가족의 사회적 문제	서비스요구	가족의 건강
가족 형태	핵가족 (353)	25.70	18.29	2.08	3.37	12.22	2.60	7.35	5.09
	직계가족 (73)	25.95	15.80	1.99	3.78	9.22	2.25	7.75	4.39
	F	0.00	1.06	0.02	0.32	7.05**	0.41	0.12	0.88
	집 단 (빈도)	부부 관계	가족의 사회적 손상	친지간 불화	경제적 악화	남편의 문제	주부의 사회활동	친지의 지원	Total
	핵가족 (353)	8.14	5.25	5.41	5.80	1.48	3.83	1.39	103.95
직계가족 (73)	8.29	4.88	4.00	3.36	1.09	4.39	1.03	99.16	
F	0.02	0.27	3.56*	5.78*	0.96	0.78	0.97	0.20	

* 소득분포에서 상위 25%(171만 이상)를 "상", 26-75%(91-170만)를 "중", 76-100%(90만 이하)를 "하"로 구분
*P<.05 **P<.01 ***P<.001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출 및 경제적 손실과 친지의 지원에서는 29세 이하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이 집단이 경제적 불안정의 시기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가족수에 따라 차이를 보인 생활사건 요인은 자녀의 발달과 변화, 생활수준 변화, 친지의 지원요인과 전체생활사건이다. 자녀발달 및 변화와 생활수준 변화요인은 가족수가 많을 수록 경험한 사건에 대한 심각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제한된 자원으로 많은 가족에게 균형을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특히 노력해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친지의 지원요인은 자녀수가 적을수록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 생활사건 요인은 지출 및 경제적 손실, 자녀의 발달과 변화, 서비스의 요구, 주부의 사회활동, 경제적 악화이다. 지출 및 경제적 손실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대졸이상 집단에서 관련 생활사건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했으나 경제적 악화와 관련된 중요도 평가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자녀의 발달 및 변화와 가족의 변화의 요인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중요도를 높게 두고 있고 서비스 요구와 주부의 사회활동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중요도를 높게 두고있어 이것은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은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변화에 대해,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은 가족발달적 변화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차이를 보인 생활사건 요인은 15개 중 11개 요인이며,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요인은 가족의 사회적 손상, 남편의 문제, 주부의 사회활동, 친지의 지원 등 4개 요인이다. 특히 차이가 있는 요인인 자녀의 발달과 변화에 관련된 사건들의 중요도가 자녀의 대학교육기, 직업적응기, 결혼기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이것은 자녀의 사회진출 및 결혼이 제2의 탄생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도시가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인 생활사건 요인은 생활수

준 변화, 주부의 사회활동, 친지의 지원요인과 전체 생활사건이다.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생활수준변화, 주부의 사회활동에 관해 중요도를 낮게 두고 있어 이들 집단이 관련 생활사건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친지의 지원에서는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중요하게 평가하여 이집단에서는 경험빈도도 많았고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인 생활사건 요인은 자녀의 발달과 변화, 서비스 요구, 주부의 사회활동요인이다. 취업주부가 전업주부보다 주부의 사회활동, 서비스 요구에 관련된 생활사건에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고 자녀의 발달과 변화에 관련된 생활사건에서는 낮게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이것은 취업주부가 전업주부보다 자신의 일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형태에 따라 중요도 차이를 보인 생활사건 요인은 생활수준 변화와 친지와 불화, 경제적 악화이다. 이것은 핵가족이 직계가족보다 친지와 관계와 경제적 변화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이와 관련된 생활사건이 핵가족의 가족체계 안정성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도시 가정이 경험하는 전반적인 가정생활사건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그 척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도시가정에서 경험하는 생활사건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경험빈도와 중요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2차례의 예비조사를 통하여 도시가정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생활사건을 105개 항목으로 추출하였다. 105개 생활사건은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생활사건이 개인생활과 관련된 부정적 측면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활사건 중심이었던 것에 비해 본 측정도구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긍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한 총체적인 생활사건 항목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생활사건에 가족체계가 적응하기 위한 결정과 행동의 중요도 및 심각도를 파악하여 생활사건에 대한 개념을 가정관리의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한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105개 항목의 생활사건에 대한 중요도 및 심각도를 요인분석하여 15개 요인을 추출하였고, 그 요인은 「지출 및 경제적 손실」, 「자녀의 발달과 변화」, 「가족구성의 변화」, 「가족의 변화」, 「생활수준 변화」, 「가족의 사회적 문제」, 「서비스 요구」, 「가족의 건강」, 「부부관계」, 「가족의 사회적 손상」, 「친지간의 불화」, 「경제적 악화」, 「남편의 문제」, 「주부의 사회활동」, 「친지의 지원」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경험빈도와 중요도 및 심각도에 차이를 분석하였다. 생활사건 경험빈도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은 전체생활사건에서 연령과 가족생활주기, 가족형태 변인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생활사건 요인별에 있어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상이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수는 자녀발달과 변화, 생활수준 변화에서 차이를 나타냈고, 교육수준은 지출 및 경제적 손실, 자녀의 발달과 변화, 가족의 변화, 부부관계, 경제적 악화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취업여부는 지출 및 경제적 손실, 자녀의 발달과 변화, 서비스 요구, 주부의 사회활동에서 차이를 나타냈고, 소득은 생활수준 변화, 경제적 악화, 주부의 사회활동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가족형태는 생활수준 변화, 친지간의 불화, 가족의 건강, 경제적 악화, 남편의 문제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생활사건 중요도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은 총생활사건에서는 연령, 가족수, 교육수준, 가족생활주기, 소득으로 나타났고, 생활사건 요인별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생활사건의 중요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취업여부는 자녀의 발달과 변화, 서비스 요구, 주부의 사회활동요인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가족형태는 생활수준 변화, 친지간의 불화, 경제적 악화요인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이상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생활사건 요인별로 생활사건 경험빈도와 중요도에 차이를 나타냈고, 특히 연령과 가족생활주기는 전체적인 생활사건에 차이를 나타낼수 있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 주부가 가장 중요하고 심각하게 경험하는 생활사건은 자녀 출산, 자녀의 대학입학, 취업, 결혼등 자녀와 관련된 사건으로 나타나, 자녀의 존재가 현대 가정에 있어서 매우 절대적인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현대는 부정적인 생활사건보다 긍정적인 생활사건에 대해 더욱 중요하고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을 말해준다. 도시주부가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달적 사건에 대해 비중을 크게 두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도시주부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경험하는 생활사건은 자녀교육비 증가, 가족의 의료비 증가등의 가계지출증가와 그에 따른 남편과의 불화, 그리고 친지와 의 금전 거래와 의견 대립으로 인한 불화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 도시 가정에서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금전과 관련된 생활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그것이 또한 중요하게 인식됨을 말해준다.

이상의 연구에서 현대가정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매우 다양한 생활사건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사건에 대한 가족의 인식도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비교를 통해서 동일한 생활사건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과 생활사건에 대한 중요도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생활사건은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접근방법으로 파악되었으나 본연구에서는 요구, 목표, 가치와 함께 가정생활에서 당면하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총체적인 생활사건을 관리체계의 투입으로 다루려는 탐색적 연구를 시도 하였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가정생활사건은 가족의 요구 및 목표와 함께 가정관리 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투입요소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Deacon & Firebaugh, 1975) 실제로 가정생활의 사건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가정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정생활사건에 관한 심층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고병학·송옥현·신윤오, 한국인의 생활사건에 관한 예비적 연구 I - 생활사건 척도, 신경정신의

- 학, 제 20권 1호, 1981.
- 2) 고은숙·김명자, 취업부인의 스트레스원, 내외통제성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1권 1호, 1993.
 - 3) 김경아, 기혼여성이 지각한 가정경영상의 스트레스 수준 및 관련변인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4) 김기태, 위기개입론, 대왕사, 1984.
 - 5) 김명자, 중년기 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과 위기감, 대한가정학회지, 제 2권 1호, 1991.
 - 6) 김정옥·박순희, 가족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28권 3호, 1990.
 - 7) 김혜연, 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가정관리행동의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8) 노영삼·정용선, 한국인 생활유구와 요인구조 및 관련변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28권 1호, 1990.
 - 9) 박종원, 청소년 정신장애 환자의 생활사건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 21권, 4호, 1982.
 - 10) 백기청, 스트레스와 생활사건 -방법론 및 정신질환자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정신건강 연구소, 정신건강연구, 1991.
 - 11) 배종렬, 가족의 일상사건과 스트레스 및 극복방안,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12) 원효중·옥선화, 가족의 사회관계망 구조와 관련변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31권 2호, 1993.
 - 13) 옥선화의,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40대 중산층 주부가 지각한 가정생활의 제문제, 대한가정학회지, 제 29권 2호, 1991.
 - 14) 이평숙, 생활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량 측정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4.
 - 15) 정만자,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가족자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16) 최태진·강병조, 한국에서의 사회재적응 평가척도에 관한 예비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 20권 2호, 1981.
 - 17) 홍강의·정도연, 사회재적응 평가척도 제작, 신경정신의학, 제 21권 1호, 1982.
 - 18) Baugher, S.J., & Martin, B.B., The Decision-Filled Years of adolescence,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73, No. 3, 1981.
 - 19) Dohrenwend, B.S., Life events as stressors: A methodological inquir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4, 1973.
 - 20) Fairbank, D.F. & Hough, R., Life Events Classification and the Event-Illness Relationship, Journal of Human Stress, 5, 1979.
 - 21) Deacon, R.F. & Firebaugh, F.M., Home Management: Context & Concepts,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75.
 - 22) Boss, P., Family Stress Management, Family Studies Text Series 8, 1988.
 - 23) Holmes, T.H. & Rahe, R.H.,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Vol. 9, 1967.
 - 24) Sarason, I.G., Johnson, J.H. & Siegel, J.M., Assessing the Impact of Life Changes, Development of the Life Experience Surve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1979.
 - 25) Stevens, S.S., Galanter, E.H., Ratio Scales and Category Scales for a Dozen Perceptual Continua,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957.
 - 26) Vinokur, A. & Selzer, M., Life Events: Their Relationship to Stress and Ment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8, 1975.